

근대 유럽의 도덕론과 흄*

최 희 봉

주제분류 흄의 도덕론, 윤리학, 근대 도덕론, 17, 18세기 도덕론

주요어 흄의 도덕론, 자연법 이론, 합리주의 도덕론, 이기주의 도덕론, 도덕감 이론

요약문

이 논문은 감정에 기초하여 도덕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경험론적 도덕론의 대표자인 흄에 대한 탐구의 일환이다. 즉 이 논문은 흄의 도덕론을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이것에 영향을 미친 17, 18세기 유럽의 여러 도덕론의 조류를 살펴보고, 이것들과 흄의 관계를 탐구하려는 시도이다. 이 시기에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도덕의 토대가 무엇인지의 문제를 놓고 대표적으로 4 가지 유형의 도덕론들이 경합하고 있었다. 자연법 이론, 합리주의 도덕론, 이기주의 도덕론, 도덕감 이론이 그것이며, 논자는 이것들과 흄 사이의 관계를 차례로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논자가 도달한 결론은, 흄의 도덕론은 도덕감 이론의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영향의 산물이며, 또한 나머지 세 가지 도덕론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흄의 도덕론이 지닌 사상적 배경에 대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논자는 흄의 도덕론에 대한 체계 내적 연구와는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이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으며, 나아가서 이 연구가 단지 흄에게 미친 영향의 내용을 밝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흄 도덕론의 탁월성과 독창성을 드러내는 데에도 중요하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03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3-074-AM0009)

1.서론 : 근대 도덕론에서 이성과 감정

근대에 들어오면서 근대인들의 도덕에 관한 사고방식은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고대의 윤리학은 소수의 지식인 또는 현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최선의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중세의 윤리학은 종교적 권위와 질서에 의존할 경우에만 의미를 지니는 도덕체계를 제공했을 뿐이다. 그러나 근대의 윤리학은 도덕성이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권위에 의존하여야만 성립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오직 인간 자신의 능력, 특히 이성이라는 능력을 근원으로 하여 스스로 도덕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발판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신념은 어떤 특별한 개인만이 아니라 누구든 보편적으로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통해 더욱 강화되며, 이 능력은 인간의 자율 또는 자기통제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드러난다. 또한 중세 윤리학에서 볼 수 있는 종적인 질서가 사라진 상태에서 동등한 능력과 권리를 소유한 자유로운 개인들이 함께 살면서 자기 욕구의 대상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개인들 간의 권리와 이익의 대립과 상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하여 공적인 공간에서 도덕성을 확보할 것인가도 근대 윤리학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근대윤리학의 특징들은 합리론적 전통과 경험론적 전통에 공유되어 구체화되는데, 양 전통의 전제들이 보이는 차이로 인해 그 드러나는 양상과 강조점이 달라진다. 현 논문의 목적과 과제를 살펴보기 전에 도덕에 관한 합리론과 경험론 사이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 차이는 ‘도덕은 감정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성의 문제인가’라는 물음으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데카르트를 선두로 하는 근대 합리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을 이성의 문제로 보았으며, 흄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듯이, 근대 경험론자들은 도덕을 감정의 문제로 보았다. 이러

한 이성과 감정의 대립은 근대 철학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며, 근대 이전에는 합리론적 전통이 우세했다고 볼 수 있다.

이성 중심적 윤리관과感性 중심적 윤리관 사이의 논쟁의 역사는 비단 윤리학사에 한정되지 않고, 철학사 전반에 걸친 전개 과정이다. 이러한 싸움의 가장 극적인 비유는 플라톤과 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영혼의 삼분설과 영혼 불멸설을 말하면서 영혼의 세 가지 기능을 각각 두 마리의 말과 이를 모는 마부에 비유하고 있다.¹⁾ 검은 말로 비유되는 욕망(desire)과 흰말로 비유되는 기개(spirits)는 마부로 비유되는 이성(reason)에 의해 통제되어야만 한다. 이성은 감정이나 욕망보다 우선하며 인간의 행복이나 영혼의 완전성에 더 기여한다. 반면에 감정이나 욕망은 억제되거나 절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플라톤은 도덕에서 이성의 힘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합리론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합리론의 전통을 계승한 데카르트의 합리론적 윤리학은, 비록 어느 정도 감정의 중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감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나는 감정을 인간 본성의 한 요소로 인정하면서도 본질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주변적인 요소로 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본질을 형성하는 이성적 영혼을 현혹시키고, 나아가 도덕적 인식을 포함한 진리 인식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본 것이다. 이처럼 감정을 주변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요소로 봄으로써 그것은 단순히 통제되거나 조절되어야 할 그 무엇으로 여겨졌다. 그 때문에 정신의 적극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감정의 개입을 통제하고 극복함으로써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얻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반하여 흄은 이성과 감정의 이분법적 대립에 주목하면서 이성을 감성의 노예에 비유하고 있다. 이성에 대한 감성의 우위론을 펼친 것이다. 흄은 과거 도덕 철학은 이성 우위의 사고방식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의 잘못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임무를 두 가지로 상정한

1) Plato, 'Phaedrus', *Plato: The Loeb Classical Library*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Vol. I. no. 246, 471-473쪽. 참고.

다. 첫째는 오직 이성만으로는 그 어떤 의지 활동도 일으킬 수 없음을 보이는 것이며, 둘째 임무는, 이성인 의지의 방향을 결정할 때 결코 정념과 상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나아가서 흄은 “이성은 오직 감정의 노예이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그리고 이성은 감정들에 봉사하고 순종하는 일 이외의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 감정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²⁾

이 논문은 근대인들의 도덕적 사유의 확립과정에서, 감정에 기초하여 도덕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경험론적 도덕론을 제시한 흄의 도덕론에 대한 탐구의 일환이다. 즉 흄의 도덕론을 탐구하기 위한 출발점의 하나로서 이것에 영향을 미친 17, 18세기 유럽의 여러 윤리적 조류들을 살펴보고, 이것들과 흄의 관련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흄의 도덕론은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1권에서 제시된 인간본성학(science of human nature)과 2권에서 시도된 이성과 정념이 행하는 역할의 적정한 범위와 한계의 설정을 밑바탕으로 삼아 비로소 『논고』 3권에서 그 본체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흄의 도덕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고』 1권과 2권의 연장선으로서의 도덕론 연구가 필수적일 것이다.³⁾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덕론에서 그가 다룬 주제들은 흄 당대의 철학적, 심리학적, 신학적 쟁점들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그러므로 흄 당대의 다양한 유형의 논쟁들을 통하여 흄의 도덕론을 이해하는 것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예를 들면, 흄은 『논고』 2권에서 미리 그 다음 권(3권)에서 다룰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 논쟁은 “... 근래에 대중의 호기심을 크게 자극한

2) 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 L. A. Selby-Bigge (Oxford: Oxford Uni. Press, 1978) vol 2, 413쪽. (이준호 번역,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서광사, 1994-1998). 이후로는 본문에서 『논고』로 약기함.

3) 이러한 연구로서, 논자는 다음 논문에서 흄의 도덕론을 ‘자연주의’라는 큰 주제 하에서 『논고』의 1권, 2권과 연계시켜 살펴본 바 있다: “흄의 자연주의적 프로그램: 도덕론의 경우” 『범한철학』 제19집, 범한철학회, 1999. 281-302쪽 참고.

논쟁으로서, 이런 도덕적 구별들이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원리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심과 교육으로부터 생겨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⁴⁾ 여기서 흄은 도덕에 관한 자연법 이론과 이기주의의 대립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흄은 『도덕의 여러 원리들에 관한 탐구』를 “논쟁들(Disputes)”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⁵⁾ 그리고 3번째 단락에서 흄 당대에 주목을 끌었던 대표적인 논쟁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최근에 도덕의 일반적 토대에 관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아주 높은 논쟁 하나가 시작되었다. 도덕은 이성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감성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는 도덕에 관한 지식을 논증과 귀납의 연쇄를 통해 도덕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인 느낌과 세밀한 내적 감각을 통해서 얻는 것인가.”⁶⁾ 이 논쟁은 도덕적 판단에 관한 합리주의와 도덕감 이론 사이의 논쟁이다.

이렇듯 흄은 『논고』 3권과 『탐구』에서 끊임없이 당대의 도덕에 관한 여러 논쟁에 관여한다. 17세기 및 18세기 초기에 도덕의 토대는 무엇인가의 문제를 놓고 네 가지 유형의 도덕론들이 경합하고 있었다. 자연법 이론, 합리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도덕감 이론이 그것이다. 이것들과 흄과의 관련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겠다.

4) 『논고』 295쪽.

5) David Hume, *Enquiries Concerning the Human Understanding and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d., L. A. Selby-Bigge, M. A. (London: Oxford Uni. Press, 1902). 이후로는 본문에서 『탐구』로 약기함.

6) 『탐구』 170쪽.

2. 자연법 이론과 흄

먼저, 자연법 이론에 대해 살펴보자. 흄은 『논고』 3권과 『탐구』의 곳곳에서 -- 합리주의와 이기주의 이론만큼은 아니지만 -- 자연법 이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고전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또는 스토아주의자일 수도 있고, 근대의 토마스 아퀴나스 추종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흄 당대의 자연법주의자들일 가능성이 많다. 그 대표자들에는 그로티우스와 푸펜도르프가 있으며, 흄은 자신의 저서들에서 이 두 사람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다음의 두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흄은 정의(justice)에 대해 그 사회적 유용성에 기초한 설명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자연법을 논한 저술가들을 검토해 보면, 당신은 항상 다음의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즉 그들은 그 어떤 원리들에서 출발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지점은, 그리고 그들이 확립한 모든 규칙들을 위해 제시하는 궁극적인 근거는, 인류의 편익과 필요이다.”⁷⁾ 여기서 '자연법을 논한 저술가들이란 윤리학, 정치학, 법학 이론에서 자연법 전통에 있는 저술가들로서 그로티우스나 푸펜도르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⁸⁾

또한 흄은 푸펜도르프의 저술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한다: “많은 정치 사회들이 세워지고, 대규모의 교류가 유지될 때면 사람들은 곧이어 일련의 새로운 규칙들이 그 특정 상황에 유용함을 깨닫게 되며, 이에 따라 그것들을 국제법이라는 표제 하에 포함시킨다. 대사직 수행인에 대한 불가침, 유독 무기의 사용자제, 전쟁에서 항복한 적들에 대한 관대한 대우 등등이 바로 이런 종류의 규칙들로서, 상호 교류관계에 있는 국가와 왕국들의 이익을 피하려고 마련되었음은 명백하다.”⁹⁾ 푸펜도르프는 이미 대사의 면책특권, 유독 무기의 폐기, 전쟁포로 예우에 관

7) 『탐구』 195쪽.

8) 흄은 『탐구』 부록 3의 주 1에서도 그로티우스를 인용하고 있다. 307쪽.

9) 『탐구』 205쪽.

한 국제법에 관해 논의 한 바 있다.¹⁰⁾ 흄은 이런 규칙들 역시 그 유용성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 자연법주의자들에 대한 흄의 견해와 평가를 살펴보기 전에 자연법 이론 자체에 대해 살펴보자.

자연법(natural law)이란 개념은 인간에게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자연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유방식이다. 먼저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일정한 법칙이 주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그 법칙은 자연적 법칙이다. 그리고 성경과 같은 계시된 지식에 대립되는 자연적 지식을 통해 접근가능한 법칙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자연적 법칙이다.¹¹⁾

그로티우스는 당대의 도덕 회의론자들을 겨냥하여 도덕을 견고한 토대 위에 놓으려는 과제를 수행한다. 그로티우스에 따르면 도덕 회의론자들은 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기 이익에 대한 고려에서 만들어졌으며, 인간 행위의 유일한 동기는 자기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도덕적 구별은 동기의 차이들에 의존할 뿐, 실제적인 도덕적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자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목적을 향하도록 자연에 의해 추진된다. ... 결국 정의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에 따르는 것은 최고의 바보짓이다. 어떤 사람이 타인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반하는 셈이기 때문이다.”¹²⁾

10) Tom L. Beauchamp ed. *David Hume: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주석 4절 2번(216쪽) 참고. 여기서 언급된 푸펜도르프의 저서는 다음과 같다: Samuel Pufendorf, *De jure naturae et gentium*[*On the Law of Nature and Nations*], trans. C. H. Oldfather and W. A. Oldfather, 2 vols. (Oxford: Clarendon Press, 1934).

11) 이하의 그로티우스와 푸펜도르프에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하였다: Alan Charleskors ed. *Encyclopedia of the Enlightenment*, 4vo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Natural Law" vol 3, pp. 130-133; David Fate Norton, "Hume, human nature, and the foundations of morality" in David Fate Norto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um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 148-181; pp.149-158; Tom L. Beauchamp. *op. cit.*, Introduction pp. 17-23.

12) Hugo Grotius, *Of the Law of War and Peace in Three Books*, trans. W. Kelse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5). pp.10-11. 이 인용문은 다음 책

이런 도덕적 회의론에 반대하여, 그로티우스는 적어도 4개의 도덕의 토대를 제시한다.¹³⁾ 인간성이 지닌 특유의 사회성, 인간의 이해력 또는 이성, 개인을 사회 또는 특정 행위과정에 구속하는 계약들, 그리고 신의 자유의지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그로티우스는 회의론적 주장에 반대하여, 정의와 선은 인간 본성의 작용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한다. 인간 본성 안에 내재하는 이런 기질들은 어김없이 사회적 체제를 통해 실현된다. 즉 이것이 구현된 사회 체제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구별을 갖추고 있으며, 이런 구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국 사회 체제가 만들어내는 규칙들과 구별들은 단지 고립되고 일시적인 자기이익에 대한 관심들이 낳은 계약적 산물이라기보다는, 자연 자체, 즉 인간 속에 있는 자연(본성, nature)의 산물인 것이다.

독일의 정치법학자인 푸펜도르프는 그로티우스를 계몽주의 자연법의 창시자로 추대하면서도, 그로티우스의 스콜라주의적 입장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즉 이성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성으로부터 자연법을 도출해내려는 시도를 비판한다. 그의 과제는 자연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있지 않고, 자연법을 그 내부로부터 변형시키는 데에 있었다. 그는 자연법의 핵심 기능, 즉 국가와 시민법에 대한 도덕적 토대를 제공하는 기능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그러면서도 세속적인 지역 국가 체계에 걸맞도록 그 토대적 근거를 재조정했다.

푸펜도르프는 신의 의지가 그의 이성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루터주의에 기반을 둔 주의론(voluntarism)을 채택하고, 여기에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신성한 이성에 참여할 수 없다 고하는 타락설을 결합시킨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주장은, 자연법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도덕 원리들의 정당화적 근거로서, 신과 인간 양자를 결합시켜주는 이성적인 도덕법은 존재할 수

에서 재인용했다: Stephen Darwall, "the foundations of morality: virtue, law, and obligation" in Donarld Rutherford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Early Modern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221-249; p. 221.

13) David F. Norton, 앞의 책, 150-151쪽 참고.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을 '영원한 법'의 한 지류로 보지 않는다. 영원한 법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제시된 도덕 신학의 관심 영역이며, 자연법은 세속적 삶에서의 인간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독자적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푸펜도르프의 입장은 신학적 기반 위에서 스콜라주의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공격함으로써, 자연법사상의 세속화를 결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 본성은 그 안에 초월적 이성의 합목적적 각인이 찍혀있기에, 초월적 이성의 원리들을 직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 본성은 경험적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 본성의 도덕적 특성은 단지 관찰을 통해 발견되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구도 위에서 푸펜도르프는 자연법에 새로운 토대를 제공한다. 만일 우리가 신과 공유한 합리적 본성의 직관에서 출발하지 않고, 인간의 자연적 조건(자연상태)에서 인간에 대한 경험적 관찰로부터 출발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사람들의 나약함은 생존을 위한 상호 부조를 필요로 하며, 사람들의 사악함은 그들의 존재를 위협한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법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즉 안전을 위해서 인간은 필수적으로 사회적이어야 한다는 것, 즉 인간은 동족끼리 힘을 합해야 하며,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보존하고 증진시키도록 도모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푸펜도르프는 세속화된 자연법을 제시한다. 즉 세속의 사회성과 사회적 평화의 증진여부가 자연법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듯 푸펜도르프는 자연법을 인간의 자연적 조건에 대한 관찰로부터 도출해낸다. 이런 견해가 지니는 두드러진 특징은, 푸펜도르프는 인간의 자연적 조건을 인간의 이성적 또는 물리적 본성에 주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에게 '부과된 지위(imposed status)'로 본다는 데에 있다. 즉 그로티우스와 달리 푸펜도르프는 사회성을 인간의 합리적 본성에 각인된 원리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규칙들에 따라 계발될 수 있는 행태의 일종으로 본 것이다.

이상에서 개괄한 그로티우스와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이론을 도덕론의

관점에서 흄과 관련시켜 살펴보자. 아퀴나스로부터 비롯된 고전적인 자연법 전통에서, 도덕적 지침들은 자연의 일부로 해석되었다. 이것들의 존재가 도덕의 객관성과 도덕적 판단의 정당화가능성을 설명해 주었던 것이다. 이런 견해는 흄 당시 영국 국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토리당의 정치사상, 왕권신수설 안에서 널리 통용되었다. 그러나 ‘자연에 내재하는 도덕적 객관성’이라는 전제는 그로티우스와 푸펜도르프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이점에서 흄도 같은 입장이다. 이들에게, 도덕적 책무와 권리는 인간 공동체들 안에서 창안된 것들이며, 동물들의 본성에는 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윤리는 인간 본성에 관한 탐구를 통해 찾아내야 할 대상이다. 이들은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엽적인 관습과 전통들을 초월하는, 믿을만한 도덕적 정치적 지침들을 개발해내고자 했다. 이들이 말하는 자연법이란 이런 지침들이다. 흄이 주목하듯이, 소유권의 규칙들, 국제 법과 정의의 규칙들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규칙들이었다. 이런 이론들의 목적은 여러 다양한 사회들에 적용될 수 있는 의견일치(합의), 보편성, 실천적 도덕 지침을 확보하는 데에 있었다. 이런 자연법 이론가들처럼, 흄도 보편적 인간 본성에 대한 신념에서 출발하였으며, 보편적 도덕규범들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연법 이론가들과 흄 사이의 공통된 견해는 어디까지나 아주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유지될 수 있을 뿐, 세부적인 견해들로 들어가면 적지 않은 차이들이 드러난다. 그 하나로서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이론에 대해 흄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자. 푸펜도르프가 그로티우스의 스콜라철학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자연법 이론에서 진일보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의 자연법 이론이 주의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데에 있다.¹⁴⁾

푸펜도르프의 주의론에 따르면, 자연은 신의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이러한 창조 행위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특정한 “도덕적 실체들”을 창조하는 행위와는 구별된다.¹⁵⁾ 이런 논리적으로 구별되는 행위

14) David F. Norton (1993), 앞의 책, 152쪽. 참고.

들이 또한 시간적으로 구별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신이 최초로 자연을 창조했으며, 그런 다음에 최초의 창조와는 별도의 자유로운 의지적 행위들을 통해 자연에 도덕적 구별들을 부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적 구별들의 궁극적 원천은 결국 신이다. 게다가 신이 세상을 창조했기에, 그는 어느 존재에게도 자신의 행위를 신의 부과사항에 일치시킬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으며, 그렇지 못한 존재를 처벌할 권리도 갖는다. 그러므로 도덕의 권리는 자연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신의 전능함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듯 주의론은 도덕성을 궁극적으로 전능한 신의 무제한적 의지에 귀속시킨다. 신은 법을 설정하며, 도덕성을 확립한다. 그리고는 영원한 보상과 처벌의 형태로 제재를 가한다. 이런 제재가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를 이런 법에 일치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흄은 이런 접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흄에게 주의론자들은 도덕의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와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들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행위하는 그런 사람을 덕있고 선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이와 달리 흄은 신의 처벌과 같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가 도덕적 특성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두려움의 동기로부터 수행된 몇몇 행위들은 도덕적 행위들로 여겨질 것이지만 이런 동기는 명백히 자기이익적인 동기이다. 결국 주의론자들은 결과주의적이든 동기주의적이든 모든 도덕성이 자기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흄의 견해와 다르다. 흄은 자비심이나 인간애와 같은 이타적 감정을 도덕의 토대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도덕의 원천을 신에게서 찾고, 도덕의 토대를 자기심에 기초해서 설명한다는 면에서는 푸펜도르프는 흄과 커다란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여기서 “도덕적 실체들(moral entities)”이란 “자연적 실체들(natural entities)”에 대비되는 푸펜도르프가 사용한 독특한 개념으로서, 자연적 실체들은 창조(Creation)에 의해 생겨난 것들을 말하며, 도덕적 실체들은 최초의 창조 이후에 부과(Imposition)에 의해 생겨난 것들을 말한다. David F. Norton (1993), 앞의 책, 176쪽, 주 4번 참고.

3. 합리주의 도덕론과 흄

다음으로 합리주의 도덕론에 대해 살펴보자.¹⁶⁾ 이들은 감정을 도덕에 부적합한 것, 도덕을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것으로 여겼다. 이들에 따르면, 행위들 자체에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 또한 감정이나 이기심은 불변하는 선과 악에 대한 적합한 관념을 가짐으로써 극복될 수 있으며, 이런 관념의 근원이 이성인 것이다. 이성은 마치 수학의 공리를 파악하는 능력을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 덕, 자애심, 정의, 정직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을 지닌다. 이런 합리주의 도덕론의 대표자들로서 커드워스, 클라크, 윌러스턴, 발귀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커드워스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¹⁷⁾

커드워스는 흄스와 같은 이기주의론과 푸펜도르프와 같은 주의론에 반대하면서, 도덕에 대한 합리주의 입장을 취한다. 즉 도덕적 구별들은 실

16) 대표자들로는 커드워스(Ralph Cudworth, 1617-1688), 클라크(Samuel Clarke, 1675-1729), 윌러스턴(William Wollaston, 1659-1724), 발귀(John Balguy, 1688-1748), 말브랑슈(Nicolas Malebranche, 1638-1715)가 있다.

17) 흄은 몽테스키외도 합리주의 도덕론자에 포함시켜서 비판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다음 인용문에서 『법의 정신』의 저자가 바로 몽테스키외다): “『법의 정신』의 저자[로서] 이 저명한 저술가는 [흄의 것과는] 다른 이론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면서, 모든 권리는 특정 관계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내 견해로는 참된 철학과 결코 조화될 수 없는 체계이다. 내가 아는 한, 말브랑슈 신부가 도덕에 관한 이런 추상적인 이론을 출발시킨 첫 번째 인물이었다. 그 이론은 나중에 커드워스, 클라크 등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리고 그 이론은 모든 감정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이성을 모든 것의 기초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요즘의 철학 세대에서 부족함이 없는 추종자들을 거느린다. 부록 1의 1소절을 참고할 것. 이 자리에서 다루고 있는 덕인, 정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이론을 반박하는 추론은 간단하면서 결정적일 듯싶다. 우리는 소유권이 시민법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시민법이 사회의 이익 말고는 다른 아무런 목적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의 이익이 소유권과 정의의 유일한 기초라는 주장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치안관과 그의 법에 복종해야할 우리의 의무 자체도 사회의 이익 말고는 그 어느 것에도 기초하고 있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다.” 『탐구』 no 158, 197쪽, 주 1.

제가 지니는 고정·불변적 성질들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흄스는 프로타고라스와 같은 고대의 도덕 회의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의와 불의를 단지 인위적인 계약들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원자들과 빈 공간 말고 실재적이거나 자연적인 것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⁸⁾ 또한 주의론자들은 실재로 선하거나 정의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가 악하거나 불의하다고 부르는 것들이 실제로는 신의 무제한적 권능에 의해 선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 만일 주의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신의 무제한적 의지가 도덕적 구별의 근원이라면, 그리고 신이 전능한 창조자로서 도덕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면, 그는 아무 때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덕적인 부과물들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지독하게 사악하다거나 극악하게 불의하거나 부정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만일 전능한 신에 의해 명령된다면, 그것은 성스럽고, 정의롭고, 옳은 것이 된다.¹⁹⁾

이런 견해에 반대하여 커드워스는 플라톤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지식은 불변한다는 것이다. 지식은 현존하는 사물들에 관한 것이며, 만일 사물들이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태와 다를 수 있다면, 지식은 그것들에 관한 지식이 못될 것이다. 사물에 관한 지식은 언제나 그 사물의 본성을 아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지식이 존재한다면, 지식의 대상으로서의 본성이 존재해야만 한다.²⁰⁾

이런 지식론은 커드워스의 도덕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지식이 전제하는 두 가지는 이렇다. 알려져야 할 실제적 지속적 본성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본유적 관념들에 적합하게 맞추어져 있어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본성들을 인식하게 해준다는 것이 그것

18) 커드워스의 흄스 비판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David Fate Norton, *David Hume: Common-Sense moralist, Sceptical Metaphysici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pp. 27- 29 참고.

19) Ralph Cudworth, *A Treatise concerning Eternal and Immutable Morality* (London, 1731; facsimile reprint, New York, 1976) pp. 4, 9-10; David Fate Norton, 앞의 책, 152-153쪽. 참고.

20) Ralph Cudworth, 앞의 책, 55-74쪽. 참고.

이다. 그런데 만일 물체, 원인, 삼각형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본유적으로 이런 사물들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개념들을 세계의 대응하는 측면들에 일치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왜 우리는 실재적 지속적 도덕적 본성들, 즉 실재적이고 지속적인 선 또는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가 본유적으로 덕, 정직, 정의와 같은 도덕적 개념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심하는가? 어떤 사물들이 삼각형의 성질을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들은 정의를 공유한다. 그 사물에 대해서 그것은 삼각형의 형태이지 둥근 형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참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에 대하여 그것은 정의롭다, 불의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참인 것이다. 삼각형은 삼각형이며, 정의는 정의이다. 이런 엄연한 사실들은 욕망이나, 관습, 또는 가장 강력한 자의 판결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들이다.²¹⁾ 흄스는 도덕성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환원시킨 오류를 범했으며, 푸펜도르프는 도덕성을 신의 명령으로 환원시킨 오류를 범했다. 신조차도 정의로운 것을 명령한다. 정의로운은 그 자체로 그 어떤 명령에도 우선하여 정의롭기 때문이다.

18세기로 넘어가면서 도덕의 토대에 관한 논의는 클라크, 발귀 등의 합리주의자들에게 계승된다. 이들은 발귀가 주장하듯이, “도덕의 토대는 진리 즉 사물들 자체의 본성 안에 놓여있거나 아니면 신의 관념 안에 놓여 있어야 하며, 이 둘은 결국 같다.” 그리고 행위들은 그것들이 이러한 불변적 본성들 사이에 유지되는 실제적인 관계들에 일치하는 관계들을 일으키는 한 옳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어떤 수혜자는 “그의 행위가 혜택제공자와 그 자신 사이의 감사의 관계에” 일치하거나 그것을 반영할 때 “옳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행위하는” 것이 된다.²²⁾

이러한 합리주의 도덕론의 입장에 대해 흄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의견의 공유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두 입장에 대한 상

21) 같은 책, book 4, chaps. 3-6; 특히 286-288쪽 참고.

22) John Balguy, *The Foundation of Moral Goodness* (London, 1728; facsimile reprint, New York, 1976), 33-43쪽 참고.

세한 비교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여기서는 개괄적인 스케치로 대신하고자 한다. 특히 합리주의 도덕론과 흄 사이의 일치된 견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증거 자료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흄이 부정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도덕 합리론자들에 따르면, 도덕적 구별은 초월적 원리들과 불변적 관계들에 근거하며, 이런 원리와 관계들은 모든 합리적 존재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며 이성의 사용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흄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도덕은 오직 인간 존재와 인간 사(事)하고만 관계한다는 것이 흄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고차적 존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 우리의 이성은 그런 높은 단계에 도달 할 수 없다. 이런 초월적 영역이 우리의 도달능력 밖에 있다면, 우리는 이성이 도덕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이성의 힘에 대한 과장된 견해는 합리론자들로 하여금 이성이 초월적 가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도록 유도한다. 일단 우리가 이성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그런 범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도덕이 오직 이성에게만 의존한다는 견해를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론자들은 도덕에 관한 불변적 원리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리들에 의해서 자식들은 언제나 부모에게 복종해야하고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 또는 자식들끼리는 결코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살해와 근친상간이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합리론자들은 이런 원리들이 자연 속에서는 끊임없이 위반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이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흄이 예로 들고 있듯이, 어떤 나무가 그 부모 나무보다 더 크게 자람으로써 그 부모나무를 죽였다고 해서 우리는 그 나무가 부모살해나 배은망덕의 죄를 범했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흄이 지적하듯이, “나는 이 사례에서 부모살해 또는 배은망덕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 어떤 관계라도 빠진 것이 있는가라고 묻는다.”²³⁾ 그 관계가 같음

에도 불구하고 합리론자들은 나무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는다.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흄이 묻듯이, “왜 인간 종에서의 근친상간은 범죄이고, 왜 동물들에서 이와 똑같은 행위와 똑같은 관계는 최소한의 도덕적 간악함이나 변태성을 지니지 않는가?”²⁴⁾ 그 어떤 합리론자도 한 배에서 나온 강아지들의 근친교배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합리론자들조차도 도덕성이 추상적 관계들 및 이 관계들에 대한 행위의 일치 또는 불일치로부터 전적으로 도출된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만일 합리론자들이 나무들은 의지와 선택을 결여하고 있기에 부모살해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이런 반대를 반박하려한다면,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론을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도덕적 차이들을 순수하게 추상적 관계들에 대한 일치 또는 불일치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원인들로부터 이끌어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설령 우리가 합리론자들이 언급하는 추상적 원리들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이 원리들이 도덕을 위한 적절한 토대를 제공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덕은 실천과 관련된 영역, 즉 의지와 실천을 포함하는 영역이며, 추상적 합리적 원리이든 이성이든, 이것은 도덕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동기부여적 힘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⁵⁾

이렇듯 흄은 합리주의 도덕론이 주장하는 도덕의 합리성, 객관성, 진리성에 대해 강력히 부정하지만, 그렇다고 흄에게서 합리주의 도덕론과 상치되는 견해만이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의 5절에서 살펴보겠지만, 흄은 기본적으로는 도덕감 이론의 전통을 계승한 인물이다. 그렇기에 흄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에 현존하는 자애심(benevolence)과 더불어 도덕에서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지지한다.²⁶⁾ 이러한 개념들은 도덕적

23) 『논고』 467쪽.

24) 『논고』 467쪽.

25) 『논고』 455-470쪽 참고.

26) ‘자애심’과 ‘도덕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흄의 논의를 상세히 살펴보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이에 대해서는 흄의 도덕론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별

판단의 보편성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이런 점에서 흄은 합리론자들과 견해를 같이하며, 또한 이런 점에서 이 두 입장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이기주의의 도덕론과 대조된다.

4. 이기주의의 도덕론

이제 도덕에 대한 이기주의의 입장을 살펴보자. 본래 이기주의는 인간 행위의 동기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으로서, 인간은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또는 자기 이익에 맞는 것만을 행한다고 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흄스의 숨씨와 맨드빌의 도발성은 이 이론을 18세기 도덕적 논쟁의 전면에서 부상시켰다. 흄은 명시적으로는 흄스와 로크를, 그리고 암시적으로는 맨드빌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도덕에 관한 이기적 체계”를 옹호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어떤 정념도 이익에 무관심하지 않고, 또한 그럴 수도 없으며, 아무리 진실 되고 가장 관대한 우정일지라도 이것은 결국 자기애(self-love)의 변형이다”라는 원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²⁷⁾ 흄을 포함한 당대 사람들은 이런 이론을 회의론으로 분류했다. 이기주의자들은 도덕에 본질적인 것, 즉 ‘도덕적 동기(moral motive)’의 실재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는 아무리 결과적인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겨질 지라도 그 동기는 도덕적이지 못하다. 도덕적 동기는 타인들의 이익을 고려하며, 자비적이고, 우호적이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등의 욕구로부터 행위하는 것을 함의한다.²⁸⁾

먼저 흄스의 이기주의의 도덕론 또는 도덕적 회의론에 대해 살펴보자. 근대의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깊은 인상을 받은 흄스는 중세적인 관점을 배척한다. 즉 자연의 사물들이 자신들의 본성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자연은 그 자체의 내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견해를

도의 탐구 기회로 미룬다.

27) 『탐구』 부록 2, no. 248, 296쪽.

28) 『탐구』 부록 2, no. 247-248, 295-296쪽 참고.

배척하면서, 홉스는 모든 도덕적, 물리적 현상은 하나의 같은 기계적 원리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논하여 밝힌다. 홉스가 보기에, 자연에 내재하는 가치들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도덕의 토대는 자연에서 찾아질 수 없다.²⁹⁾ 인간은 본질적으로 도덕과는 무관하다. 사회적 직능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동기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도덕적 성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홉스에 따르면, 우리들 각자는 자기 이익적 동기로부터만 행위한다. 우리가 비록 통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나 행위에 대해 ‘선하다’ 또는 ‘악하다’는 도덕적 평가를 내리기는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평가들의 실질적 토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하다’는 쾌락을 주는 것을 가리키며, ‘악하다’는 고통을 주는 것을 가리킬 뿐이다. 쾌와 고통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특수한 욕구의 작용일 뿐이며, 이 작용은 단지 물리적 자극들에 대한 순전히 기계적인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모든 도덕적 용어들은 오직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의미있으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상들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취해질 수 있는 선과 악의 공통된 규칙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³⁰⁾

다음으로 맨드빌의 도발적인 이기주의 도덕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1723년 버나드 맨드빌의 『벌들의 우화』 증보판이 출간되면서 도덕의 토대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격화되었다. 맨드빌은 샤프츠버리 이론의 인식론적 측면들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³¹⁾ 그러나 그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비이기적으로 묘사하는 이론의 지나친 낙관주의를 비판했으며, 도덕적 회의주의를 창안론(artifice theory)의 형태로 명쾌하게 재서술했다. 즉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행위는 모두 자기 이익에 의해

29) 도덕에 관한 이기주의자로서의 홉스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할 것: David F. Norton (1982), 앞의 책, 21-26쪽.

30) Thomas Hobbes, *Leviathan*, ed. M. Oakeshott (Oxford, 1960), Part I, Chap. 6 참고.

31) 샤프츠버리에 대해서는 본고의 다음 절(5절) 참고.

동기화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을 조종하기 좋아하는 영리한 소수들이 생각하기에, 확고한 도덕적 구별들이 존재한다는 신념을 확산시키면 이들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마침내 도덕을 고안해 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신념이 진정한 것인 양 믿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맨드빌은 “도덕적 덕은 아침이 자긍심과 낡은 정치적 자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³²⁾

맨드빌은 인간 행위의 저변에 있는 동기는 사적인 이익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이지도 자비롭지도 않다고 주장한다.³³⁾ 맨드빌은 아주 도발적인 논제를 내놓는다. 즉 덕이 아니라 악덕이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에 최고의 이익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먹고, 마시고, 사치품을 구매하는 악덕이 고용을 창출하고 모두에게 더 나은 생활을 가져다준다. 악덕은 사치와 행복에 대한 자기 이익적 욕구이다. 맨드빌의 용어법에 따르면, 경쟁심, 시기, 사치품에 대한 열정, 개인적 성공에 대한 열망과 같은 덕성들은 모두 악덕에 속한다. 결국 사람들 각자는 개인적 출세를 위해 ‘악하게’ 행동하며, 그럼으로써 무심결에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이제 앞서 간략히 살펴본 흄스와 맨드빌의 이기주의 도덕론에 대하여 흄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보자. 흄스는 모든 행위의 동기는 자기 이익에 있으며, 따라서 이것 말고 별도의 도덕적 동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흄은 이런 논증의 한가지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즉 동기는 덕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는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동기가 자기 이익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 하여 거부한다. 인간은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이익적이지만, 그들의 행위를 세밀하게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드러난다. 즉 “우리는 사적인 이익이 공적인 이익으로부터 분리된, 심

32) Bernard de Mandeville, *The Fable of the Bees*, ed. F. B. Kaye, 2 vols. (Oxford, 1966), 1: 51.

33) 같은 책, 1: 18-24, 39-41, 324쪽 참고.

지어 사적인 이익이 [공적인 이익에] 상반되는, 사례들을” 관찰한다.³⁴⁾ 그리고 순전히 공익적인 동기로 어떤 행위가 행해지는 사례들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경우에는, 사적이고 공적인 이해관심이 동시발생하며, 함께 작용함으로써 사적 관심만으로 낳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공익에 대한 관심을 낳기도 한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여 흄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사례들이 촉구하듯이, 우리는 자기에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도덕감을 설명하는 이론을 거절해야 한다.”³⁵⁾

흄은 맨드빌의 창안론(artifice theory)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흄에 따르면, “어떤 철학자들은 모든 도덕적 구별들을 창안과 교육의 결과로 설명했다. 즉 숨씨좋은 정치가들이 사람들의 사나운 정념을 억누르고 그 정념을 명예와 수치심의 개념을 통하여 공공의 선 쪽으로 작용하도록 만들려고 시도했을 때 [그 결과인 것이다].”³⁶⁾ 이 이론은 한마디로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³⁷⁾ 먼저 공공의 선과 아무 관련없는 덕들과 악덕들이 존재한다. 이런 덕들은 맨드빌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둘째로 만일 우리가 도덕감을 본성 안에 지니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숨씨좋은 정치가들이 도덕적 언어의 사용을 창안하거나 교육시킨다고 해도, 우리 안에 도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행위들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우리는 일관되게 어떤 것에 대해 명예롭다, 다른 것에 대해 명예롭지 못하다 등등의 용어를 적용시킨다. 그러나 맨드빌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용어의 존재와 사용은 그가 가정하는 숨씨좋은 정치가들에게서 근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흄이 보기에 이런 설명은 한마디로 믿을 수 없으며, 마치 숨씨좋은 광학기술자는 시각이 없는 종족에게도 색깔

34) 『탐구』 no. 178, 219쪽. 『탐구』 215-219쪽 참고.

35) 같은 책, 같은 쪽. 또한 흄은 “이기주의적 가설에 대한 가장 명백한 반박은” 그것이 명백한 사실들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고 말한다. 『탐구』 부록 2, 298쪽.

36) 『논고』 3권 578쪽.

37) 같은 책, 같은 쪽.

용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자연이 도덕적 구별들을 “마음의 근원적 구조에 근거시키지 않았다면, 명예롭다와 수치스럽다, 사랑스럽다와 혐오스럽다, 고귀하다와 야비하다와 같은 단어들은 그 어떤 언어에서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며, 정치가들이 이런 단어들을 창안했다할지라도 결코 그것들을 이해시키거나 그 어떤 의미도 전달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³⁸⁾

5. 도덕감 이론과 흄

이제 흄의 도덕론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흄 당대의 도덕 이론으로서 도덕감 이론에 대해 살펴보자. 이 이론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도덕적 입장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18세기 초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삶은 자연법 이론가들이 말하듯이 인간 본성에 새겨진 자연법에 근거하지 않는다. 또한 합리주의적 도덕론자들이 말하듯이 이성의 영원한 진리에 기초하지도 않으며, 이기주의 도덕론자들이 말하듯이 자기이익에 근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에게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본유적이면서도 이성과 무관한 능력이 존재한다고 도덕감주의자들은 말한다. 이들을 대표하는 샤프츠버리와 허치슨의 견해를 살펴본 뒤 이들과 흄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샤프츠버리는, 흄스의 (그리고 로크의) 이기주의 도덕론을 도덕적 회의론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³⁹⁾ 흄스는 도덕적 동기와 도덕적 덕을 자기애로 환원시킴으로써 이것들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샤프츠버리에 따르면, 자기이익을, 그리고 주권자와 같은 인간 또는 신의 권한에 대한 두려움을, 도덕적 생활의 동기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는 모든 인간이 천성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은 선

38) 『탐구』 no.173, 214쪽. 이와 유사한 비판이 『논고』 3권(500쪽)에도 있다.

39) 샤프츠버리의 흄스와 로크 비판과 그의 도덕감 이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David Fate Norton (1982), 앞의 책, 33-43쪽.

하게 행위할 수 있는, 그리고 옳음과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능력을 도덕감(moral sense)이라고 불렀다.

샤프츠버리는 도덕적 판단의 일종으로서의 도덕감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들과 사건들에 내적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 주목했다. 예를 들어 아름다움은 지각된 대상들에 대한 지각자의 자동적인 반응을 요구하는데, 이런 반응을 미감각(sense of beauty)라 부를 수 있다. 샤프츠버리에 따르면, 이런 미감각과 유사한 것이 바로 도덕감각(moral sense)이다. 이러한 도덕 감각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반응하는 방식 속에 내재하는 ‘도덕적 아름다움’을 감지한다. 이런 자연적 반응 능력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동기나 행위를 놓고 도덕적 적합성이나 부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준다는 것이다.⁴⁰⁾

샤프츠버리의 이러한 도덕 심리학을 깊고도 날카롭게 비판한 사람이 맨드빌이며, 이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살펴보았다. 이런 이기주의 도덕론자의 비판에 대응하여, 허치슨은 샤프츠버리의 초보적인 사상을 다듬어서 도덕감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⁴¹⁾ 그에 따르면, 우리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에 더하여, 도덕적 판단, 도덕적 분별 그리고 도덕적 지식을 낳는 내적 감각을 지니고 있다.⁴²⁾ 우리는 사람들의 도덕적 성질들을

40) 노턴은 샤프츠버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샤프츠버리는 인간 본성 자체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를 통하여 덕이 “그 자체로 사물의 본성 안에 실재하는 어떤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런 연구는 그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끌었다. 즉 흄스를 비롯한 다른 회의론적, “이기적” 도덕론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은 도덕감(moral sense)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 도덕감은 자연적 도덕적 특성으로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타적 관심을 포함하며, 객관적으로 정초된 도덕적 분별들을 인식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David Fate Norton (1993), 앞의 책, 154쪽.

41) David F. Norton (1982), 앞의 책, 55-93쪽 참고.

42) Francis Hutcheson, *A system of Moral Philosophy* (Fac. London, 1755), in vols. 5-6 of *Collected Works of Francis Hutcheson*. 1.1.5; *An Inquiry into the Original of our Ideas of Beauty and Virtue; In Two Treatises* (fac. London,

지각하며, 이런 도덕감을 통해 인간의 행위와 동기를 평가한다. 마치 외적 감각들을 통해 사물들의 감각적 성질들을 지각하듯이 말이다.

허치슨에 따르면, 행위들이 도덕적인 이유는 그 행위를 낳는 동기들이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며, 또한 자기 이익과 무관하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행위가 우리를 불쾌하게 하거나 우리의 이익을 해칠 때조차도 그 행위를 덕있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적장에게서 보이는 진정한 명예로움을 존중한다. 비록 그 적장이 우리 자신 및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칠지라도 말이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의 악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시인하기도 한다. 가령 그가 정의롭지 못한 행위들에 대하여 난폭한 복수를 행할 때 그의 편을 들어 줄 경우처럼 말이다.

이상에서 개괄한 샤프츠버리와 허치슨의 도덕감 이론이 흄에게 미친 영향은 흄의 도덕론 전반에 걸쳐 관찰되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상세하고 깊이 있게 진행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자로서, 캠프 스미스와 노턴을 들 수 있다.⁴³⁾ 캠프 스미스는 흄의 도덕론뿐만 아니라 흄의 철학 전체가 로크와 버클리의 경험론적 문제의식에 허치슨의 “감정주의(sentimentalism)”을 결합시킨 형태라고 해석한다. 노턴은 허치슨의 도덕감 이론의 일종의 도덕 실재론으로 해석하면서 이것의 영향을 받은 흄의 도덕론을 상식적 도덕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해석을 제공한다. 이 두 명의 거장들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도덕감 이론이 흄의 도덕론에 미친 영향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논자는 허치슨의 도덕론이 지닌 두드러진 난점 하나를 검토하면서, 이로부터 허치슨과 흄의 동반관계가 깨어지는 지점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 절을 마감하겠다.

앞서 허치슨이 주장하듯이, 행위들이나 동기들이 선한 이유가 우리가

1725), in vol. 1 of *Collected Works of Francis Hutcheson*. Treatise 1, sect. 1 참고.

43) Norman Kemp Smith, *The Philosophy of David Hume* (London: Macmillan and Co, 1949); David F. Norton (1982), 앞의 책.

그것들을 시인하기 때문이라면, 우리의 시인을 얻는 행위나 동기는 무엇이든 선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덕을 추구하는 이유는 덕있는 행위가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이며, 악행을 피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불쾌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허치슨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런 이론은, 덕행에 의해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덕행을 행할 동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악행에 의해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악을 행할 동기를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홉스와 맨드빌 같은 이기주의 도덕론 또는 도덕적 회의론과 큰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허치슨이 직면하는 이러한 난점은 흄의 도덕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홉 역시 우리의 도덕적 시인에 대해 허치슨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허치슨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의 섭리적 설계(providential design)에 호소했다.⁴⁴⁾ 신은 우리를 자비로운 행위자로 창조했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자비로운 행위들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허치슨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덕의 문제에 있어서 행위의 이익이나 불이익에 주목하는 마음을 품도록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았다 ... 자연의 창조자는 덕있는 행동을 위해 우리의 도덕가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았다...”⁴⁵⁾ 이 지점에서 허치슨과 홉은 의견이 갈린다. 홉은 자신의 도덕론에서 허치슨의 견해를 많이 수용하지만, 자신의 철학을 신학적 기반에서 철저히 분리시킨다. 홉의 철학에서 우리의 도덕적 능력과 감수성을 설명해주는 것은 허치슨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인간 본성이다. 그러나 홉이 말하는 인간 본성은 신이 부여한 인간 본성이 아니다. 그것은 순전히 경험적 관찰을 통해 확인되는 인간 본성인 것이다.

44) David F. Norton (1982), 앞의 책, 88-92쪽 참고.

45) David F. Norton (1982), 앞의 책, 89쪽, 주 53에서 재인용.

6. 맺는 글

이 논문을 통하여 살펴본 내용 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법 이론가들은 도덕을 인간 본성 위에 정초시킴으로서 17, 18세기 인간본성학의 왕성한 탐구를 촉발시켰으며, 흄의 주저인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도 바로 이런 조류의 반영이었다. 이들과 흄은 보편적 인간 본성을 믿었고, 보편적 도덕규범들을 찾고자 했다. 그렇지만 흄이 인정하는 자연법은 그 로티우스의 형이상학적 토대와 푸펜도르프의 신학적 토대를 제거시킨 인간 본성의 자연적(즉 본성적) 법칙이며, 이것이 도덕의 토대를 제공한다. 흄은 합리주의 도덕론이 주장하는 도덕의 합리성, 객관성, 진리성에 대해 강력히 부정하여, 도덕적 구별들은 행위자 주관의 감성적 판단이지 객관적 진리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인간 본성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자애심(benevolence, 또는 인간애(humanity))’과 더불어 도덕에서의 ‘불편 부당성(impartiality)’을 지지하는 흄의 논의는 도덕에서의 보편성을 주장한다는 면에서 합리주의 도덕론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기주의 도덕론에 대해, 흄은 이것이 잘못된 도덕 심리학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렇지만 이기주의는 자애심과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음을 흄은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도덕감 이론은 흄의 도덕론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허치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신학적 설명방식은 흄의 일관된 자연주의적 체계 안에는 도저히 들어설 수 없는 요소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흄의 도덕론을 보다 큰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흄의 도덕론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먼저 흄이 자신의 주요 저서들을 통해 제시한 인식론, 정념론, 도덕론, 종교론을 포괄하는 흄 철학의 체계 내에서 그의 도덕론을 이해하는 연구가 있겠다(본고 주3 참고). 이러한 연구를 내부로부터의 연구(Inquiry

from within)라 한다면, 이 논문은 흠의 도덕론을 이해하는 다른 한가지 방식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연구(Inquiry from without)라 할 수 있겠다. 흠 당대 및 전·후기 이론들과의 관련 속에서 흠의 도덕론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 논문은 이런 외부로부터의 연구의 일환으로서, 논자는 여기서 다른 네 가지 이론 중에서 도덕감 이론이 흠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영향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논자의 결론적인 견해이다. 흠의 공식적 수학(修學)경력과 그의 방대한 편지들, 저작들에 인용된 문헌들을 보면, 그는 수많은 다양한 철학자들 또는 비철학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특정 철학자나 특정 유형의 철학이 흠에게 지배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논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논자가 믿는 것은, 비록 흠의 도덕론이 당대까지의 지적 풍토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주변의 사상들과 뚜렷이 다르고 독창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논자는 현재의 연구를 흠의 독창성을 밝혀내고 이것을 더욱 더 드러내기 위한 예비적 연구로 이해한다. 물론 이런 흠의 독창성에 관한 본격적인 탐구는 또 다른 연구자가 수행해야 할 힘겨운 몫이 될 것이다.

(강원대학교)

참고문헌

- 최희봉, “흄의 자연주의적 프로그램: 도덕론의 경우” 『범한철학』 제19집, 범한철학회, 1999. 281-302쪽.
- Balguy, John, *The Foundation of Moral Goodness*, London, 1728; facsimile reprint, New York, 1976.
- Beauchamp, Tom L., ed. *David Hume: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Charleskors, Alan ed. *Encyclopedia of the Enlightenment*, 4vo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Cudworth, Ralph, *A Treatise concerning Eternal and Immutable Morality*, London, 1731; facsimile reprint, New York, 1976.
- Darwall, Stephen, "the foundations of morality: virtue, law, and obligation" in Donarld Rutherford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Early Modern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221-249.
- Grotius, Hugo, *Of the Law of War and Peace* in Three Books, trans. W. Kelse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25.
- Hobbes, Thomas, *Leviathan*, ed. M. Oakeshott, Oxford, 1960.
- Hume, David, *A Treatise of Human Nature*, L. A. Selby-Bigge, Oxford: Oxford Uni. Press, 1978.
- Hume, David, *Enquiries Concerning the Human Understanding and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d., L. A. Selby-Bigge, M. A. London: Oxford Uni. Press, 1902.
- Hutcheson, Francis, *A system of Moral Philosophy*, Fac. London, 1755, in vols. 5-6 of *Collected Works of Francis Hutcheson*. 1.1.5; *An Inquiry into the Original of our Ideas of Beauty and Virtue; In Two Treatises*, fac. London, 1725.
- Mandeville, Bernard de, *The Fable of the Bees*, ed. F. B. Kaye, 2 vols., Oxford, 1966.

철학탐구 제22집

Norton, David Fate, *David Hume: Common-Sense moralist, Sceptical Metaphysici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Norton, David Fate, "Hume, human nature, and the foundations of morality" in David Fate Norto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um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lato, 'Phaedrus', *Plato: The Loeb Classical Library*,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Smith, Norman Kemp, *The Philosophy of David Hume*, London: Macmillan and Co, 1949.

Modern moral theories in Europe and Hume

Heebong Choi

This is a study on Hume who suggested empiricist theory of morality that tries to secure universality and objectivity of morality based on feeling. The general tendency of moral theory during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in Europe which has effect on Hume's theory of morality will be illuminated as a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and an attempt to examine Hume's moral theory in relation to European moral theory during the period will be made. During this period in Europe including Britain, 4 types of moral theories, which are natural law theories, moral rationalism, moral egoism, and moral sense theories were competing one another on the question of what constitutes the foundations of morality. The researcher looks into the relation between Hume and these 4 moral theories. As a result, the conclusions the researcher reaches, are that moral sense theories have a direct and dominant influence on Hume's moral theory, and that Hume's moral theory turns out to be the product of a dynamic interaction with the rest three theories, which are natural law theories, moral rationalism and moral egoism. Through the study on theoretical background of Hume's moral theory, together with an inter-systematic inquiry into Hume's moral theory, the researcher is certain that an important understanding about Hume's moral theory can be gained. Furthermore, this study focuses not only on highlighting factors that affect Hume's moral theory, but it is also expected to make a contribution to exposing the distinctiveness and originality of Hume's moral theory.

Key Words: Hume's Moral Theory, Natural law theories, Moral Rationalism, Moral Egoism, Moral Sense Theories.

최희봉 e-mail : hchoi@kangwon.ac.kr